

# 기억의 마술이 환기하는 세계

신경숙·함정임·배수아의 소설집을 읽고

백지연  
문학평론가

소설만큼 시간과 밀접한 문학 장르가 있을까. 시간의 흐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시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소설이다. 소설가는 시간과 가장 절박하게 싸우는 사람이다.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고 순간성과 속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설가가 벌이는 분투는 더욱 힘겨워진다. 영원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부서지고 흩어진 '조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제 소설가는 존재의 온전한 시간을 복원하려는 헛되고도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기억'을 찾아가는 소설의 도정이 시작되는 것도 이 순간부터이다. 기억의 여정은 과거와의 대결인 동시에 현재를 새롭게 의미매김하려는 시도이다. 조각난 시간의 틈새로 기억의 지평을 디미는 소설가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한다.

##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리움

얼마전 출간된 신경숙의 《오래전 집을 떠날 때》와 함정임의 《밤은 말한다》, 배수아의 《바람인형》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의 소설은 각기 독특한 무늬와 색채로써 기억이 환기하는 불가해한 세계를 담아낸다. 이들의 소설이 보여주는 기억의 복원은 절망적인 현재 속에서 삶의 비의를 찾으려는 간절한 희원을 상징한다.

신경숙의 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는 일인칭 화자의 내면적 고백을 주축으로 일상과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인간이 느끼는 정과 슬픔, 고독과 그리움, 연민과 이해의 감정을 신경숙만큼 세밀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작가도 드물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경숙의 시선은 공동체적 삶의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집요한 성찰로 향해 있다. 장편소설 《외딴 방》에서 한 개인의 성장 과정과 그를 둘러싼 시대적 삶을 감동적으로 복원한 바 있던 작가는 《오래전 집을 떠날 때》를 통해 '부재'와 '단절'에 대한 한층 심화된 성찰을 보여준다. 이 소설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고통을 파헤치려는 작가의 노력은 집요하다.

소설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비어 있음'의 이미지는 공허함 자체를 표상하는 데 머

**세사람의 소설은  
각기 독특한 무늬와 색채로써  
기억이 환기하는  
불가해한 세계를 담아낸다.  
이들의 소설이  
보여주는 기억의 복원은  
절망적인 현재 속에서  
삶의 비의를 찾아  
내려는 간절한  
희원을 상징한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A5신/364면/6500원  
《밤은 말한다》 세계사/A5신/326면/6500원  
《바람 인형》 문학과학사/A5신/168면/5000원

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단절과 부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래전 집을 떠날 때》에서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소설 주인공들은 그 누군가의 '부재'가 일깨우는 사물들의 숨소리를 귀기울여 듣는다. 이들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던 '그 무엇'을 생생한 실재로 경험한다. 때로 그것은 닭을 안은 귀여운 소녀의 환영(〈마당에 관한 짧은 이야기〉)으로, 혹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영혼(〈오래전 집을 떠날 때〉)으로 다가온다. 황당하고 기이하게까지 느껴지는 이러한 환각체험은 "삶 속에서 돌연히 발생하는 부재나 돌연한 사별"을 견뎌내는 방식이다. 결국 《오래전 집을 떠날 때》에 담긴 환각과 극두의 세계는 존재의 비의를 길어올리려는 작가의 새로운 시도로 읽혀질 수 있다.

함정임의 《밤은 말한다》가 보여주는 기억의 추동은 여성 화자의 가족적 일상과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작가는 단아하고 사실적인 문체를 통해 일상이 감춘 균열을 꼼꼼하게 형상화해간다. 소설 화자는 평범하고 단조롭게 느껴지는 가족적 일상이 알 수 없는 '어두운' 틈을 가리고 있음을 끊임없이 의식한다. 그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의 동굴로 향해간다. 그 곳에는 남편을 잃고 힘겹게 아이를 길러온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이 서려 있다.

함정임의 소설에서 '어머니'는 화자의 불행한 유년을 상징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엄마의 일생에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꿈" (〈병신손가락〉)

이었고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어린 화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작가는 성인 여성의 내면에 잠긴 아픈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현재적 삶을 새롭게 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불안과 상처에 시달리면서도 일상을 따뜻하게 껴안고 보듬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잊혀질 것은 잊혀지고 그래도 잊혀질 수 없는 것들은 간혹 그 잊혀지는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외곽도로〉)는 작가의 전언은 새삼 의미심장하게 울려온다. 결국 함정임의 소설이 보여주는 기억의 잔상들은 존재의 불가해한 심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연결되어 있다.

## 유년기의 아름다운 환상

배수아의 《바람인형》은 신경숙이나 함정임의 소설과 비교할 때 매우 이질적인 감성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소설은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로 침윤된 황막한 일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포착한다. 소설 전체를 현란하게 수놓은 무수한 색채 이미지들과 감각적 영상은 배수아 소설을 특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바람인형》에 담긴 작품들은 유년기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펼쳐 보이면서 인물의 내면을 지배하는 갖가지 기억의 형태들을 살려낸다. 동시에 이 작품들은 배수아의 소설에 녹아 있는 허무주의의 근원이 유년에 대한 환상에서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에게 행복한 유년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주 잠깐

동안의 단상으로만 남아 있다. 행복한 가정과 공주처럼 사랑받는 어린아이에 대한 낭만적 그리움은 현실의 비극성을 강하게 환기한다. 주인공들은 "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환희에 차 있던 시간"을 돌아보는 순간에도 질은 허무에 휩싸여 있다. 이들은 삶의 영원성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음을 무섭도록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슬프고 또 슬프다. 마치 저 강물과도 같다. 젖은 머리카락과도 같다.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 (〈프린세스 안나〉)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백은 작가의 음성이기도 하다.

배수아가 보여주는 환상과 꿈은 안전한 곳이 없는 절망적 현실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려는 욕구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누군들 "장식이 달린 마차를 타고 아주 낮설고 먼 곳으로 떠나" (〈검은저녁 하얀버스〉)고 싶지 않겠는가. "어느날 아주아주 늙어버린 나" (〈내 그리운 빛나〉)를 만나는 슬픔을 그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배수아가 품고 있는 '버림받은 아이'의 초상은 정신적 공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불행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리하여 그가 쌓아 올리는 기억의 집에는 "늘 불안한 바람이 뼈까지"거나 "슬픔의 세간살이들이 넘치" (최승자, 〈기억의 집〉)는지도 모르겠다. ❖

